

투데이

삼성, 사회적기업 '희망네트워크 광주' 설립

삼성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광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취약·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에 나선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서준희 삼성 사회봉사단 사장은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소외계층 사회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희망네트워크 광주'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희망네트워크 광주의 목적사업이 원활

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 삼성 사회봉사단에서는 재정과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협약에 따르면, '희망네트워크 광주'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문화 예술 분야를 가르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돌봄서비스와 함께 집 중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을 1대1로 보살피는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삼성 측은 광주지역에서 운영되

는 240개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30 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4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다음달 초까지 사무원 5명과 아동복지교사 70명 등 75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희망네트워크 광주'에 소속된 교사는 매주 1회씩 아동센터를 찾아 인문학 강의와 문화·예술분야 수업을 실시하며,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전찬란 희망네트워크 광주 광주사업팀장은 "오는 4월부터 지역아동

센터 1곳 당 초등학생 20여명 씩 총 600여명에게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사회봉사단은 삼성그룹이 1994년 국내기업 최초로 설립한 사회봉사 전담조직으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과 서준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이 22일 시청에서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광주'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케이블카 공사 시작도 못하고 유람선 사업은 표류

여수박람회 관광객 유치 비상

정부·전남도·여수시 소극 행정·안이한 대응 비난

여수시와 전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관광객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진했던 '엑스포 케이블카 사업'과 '남도 섬 관광유람선' 사업이 박람회 기간 중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들 사업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됐던 사업인데다, 특히 엑스포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행정'으로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 14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여수 시립물산 돌산공원~수정동 자산공원(1500m)간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은 최소 공사 기간이 5개월로 예정돼 다음달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박람회 기간 내 준공은 힘든 상황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박람회 기간 중 관광객을 박람회장으로 연결하는 교통수송 역할 및 레저활동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행사가 지난 2010년 7월 첫 사업계획을 신청한 뒤 중간에 사업 구간 변경 절차를 밟은데다, 구간 내 토지 사용 등의도 늦게 이뤄지면서 승인 과정이 지연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인데다, 박람회 교통난 해소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남도가 여수박람회 기간 중 운행을 추진했던 '섬 관광유람선 운항 사

업'도 비슷하다. 전남도는 박람회와 연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해양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난해 7월 공모를 거쳐 운항사와 선정을 마쳤지만 선착장 신설 문제 등으로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면서 여지껏 운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당시 사업 시행자가 400t

급과 250t급 유람선을 투입하게 되면 여수 항구에서 출발, 낭도·사도, 금오도 등 도내 명품 섬을 버스터어하듯 유람할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운항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녹색공원 가꾸기 중점 추진키로

광주시가 자연친화적 녹색공원도시 조성을 분야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22일, UEA광주정상회의와 외국환경전망(GEO-5) 세계정부 간회의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 공원도시 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333곳에 달하는 도시공원 이용률 활성화하고 어린이공원을 어른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해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 마을 공동 휴식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함평 1인당 진료비 180만원 수도권 3배

고령화로 만성질환자 급증…상위 20위권 전남·북 15곳

전남과 전북 농어촌 지역의 1인당 진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수도권 지역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와 직결되는 고혈압·당뇨·관절염을 비롯해 치매 등 정신장애 환자의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남·북 지역 환자는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2010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환자 1명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많은 곳은 부안군(188만원)이고 다음으로 함평군(180만원)·신안군(177만원)·고흥군(176만원)·순창군(174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북 지역에는 1인당 진료비 상위 10위 안에 7곳이나 이름을 올렸으며, 상위 20위권도 무려 15곳(전남9·전북6)이나 됐다.

반면 젊은 직장인들의 비율이 높은 수원시 영통구(66만원) 등 서울·경기 상당수 지역은 1인당 진료비가 70만원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만성질환자도 전남·북 지역이 활동히 높았다. 전남

과 전북은 7대 만성질환별 환자(1000명당) 수가 대부분 1위~3위로 최고 수준이었다.

관절염은 전남(186.1명)이 1위, 전북은 3위였다. 간질환도 전남(35.0명) 1위·전북 3위였으며, 고혈압은 전남 2위·전북 3위였다.

치주질환은 전북(306.2)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은 세 번째였고, 정신 및 행동장애도 전북 1위·전남 3위였다.

이 밖에 전남은 당뇨 환자도 가장 많았다. 반면 광주의 고혈압 환자는 82.7명으로 가장 적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박재완 장관 "한·중FTA 민감부분 제외"

광주시 선관위원장에
지대운 광주지법원장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를 열고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을 제22대 광주지법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지위원장은 "올해 한해 우리나라 국운이 달라져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남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과 F1대회, 연륙연도교, 철도 등 전남도가 건의한 내년도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박람회 홍보대사에 '시네마 천국' 자크 페랭



'모스', 2001년 철새들의 이동을 그려낸 다큐 '위대한 비상'을 연출하는 등 자연과 환경에 대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페랭 감독은 '전 유럽에 해양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가 자연친화적 녹색공원도시 조성을 분야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22일, UEA광주정상회의와 외국환경전망(GEO-5) 세계정부 간회의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 공원도시 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333곳에 달하는 도시공원 이용률 활성화하고 어린이공원을 어른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해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 마을 공동 휴식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박준영 지사와의 면담에서 "한·중 FTA로 농수축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될 경우 농도(農道) 전남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표명했다.

박 지사는 이날 박 장관을 찾아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메카인 전남도가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까지 체결될 경우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며 "농·수·축산물을 협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견의했다. 또 "남해안 관광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관광을 주제로 한 관계 기관 회의, 민간 자본의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민감한 부문은 제외할 계획"이라며 "전남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과 F1대회, 연륙연도교, 철도 등 전남도가 건의한 내년도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 사주명리학: 광주시내 평생교육원 원장 많은 수강생이 몰려드는 그 비결은? 한번 들으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눈에 확 들어온다! 최첨단 영상으로 학습능력을 배가하고 집에서도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주간	2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14~16시	150,000원	230-7700-2
	관상학 야간	3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1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시주명리 초급	3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3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 2월 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 2월 1일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답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가공인(2010. 11. 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 24주 (96시간)

▶ 과정명 개강 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 2012년 2월 28일(화) 09:30

목요일(오전) : 2012년 3월 1일(목) 09:30 각 25명